개요

교육 정책 분석 – 2003 년

Overview

Education Policy Analysis - 2003 Edition

Korean Translation

개요는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으로,
OECD Online Bookshop www.oecd.org/bookshop/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본 개요는 **OECD** 공식 번역이 아닙니다.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 협력 개발 기구

본 간행물 시리즈의 목적

교육의 질 향상은 OECD 국가의 주요 정책 목표이다. 평생학습의 기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기치 아래 전세계에서 주요 정책 개혁이 진행 중이다. *교육 정책 분석*에서는 이러한 풍부한 전세계의 경험을 반추하고 이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교육정책분석 시리즈는 1996 년 OECD 에서 시작하였다. OECD 교육 위원회의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된 본 간행물 시리즈는 OECD 교육 각료가 정한 정책 최우선 과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 국제 연구 및 비교 연구를 통해 교육 정책 입안자와 관련 당사자가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 OECD 국가의 교육 활동, 국제 정보 및 지표, 관련 연구 등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배우고 정책 효과 등을 파악한다;
-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연구 결과, 분석, 논의 등을 발표한다.

*교육정책분석*은 연간 발간된다.

2003 년 간행본 개요

2003 년 간행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이슈와 전세계의 흐름을 발빠르게 검토하고 있다:

- 각 국에서 *장애 학생, 학습장애학생* 등을 정의하는 방식,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접근법, 형평성과 통합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시사하는 바;
- 일생을 통해 커리어 관리 기술을 익히도록 함으로써 평생학습을 활성화하는 청•장년층을 위한 *커리어 지침*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 *고등교육*의 목표와 대상에 대해 진행 중인 근본적인 변화 및 고등교육의 재정 및 관리 방식에서 시사하는 바;
- 개인, 정부, 기업에 의한 *성인의 평생학습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안.

이밖에도 2003 년 간행본에는 처음으로 OECD 국가의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중인 *주요 교육 정책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았다.

1 장: 다양성, 통합 교육, 형평성: 특수 교육에 대한 시사점

다양한 학생 집단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OECD 국가 교육정책의 중점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의 핵심에는 통합교육이라는 목표가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의 향상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교육제도가 이러한 사회적 포부를 성취하는데 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각국은 이를 위해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해왔다. 1 장에서는 장애학생, 학습장애 학생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전세계적의 정보와 경험에 대해서 배워봄으로써 이러한 과제 수행에 일조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각 국이 취하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알아볼 뿐

©OECD 2003

만 아니라 (i) “권리에 기초한”’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의미하는 바가, 가능한 경우 이러한 장애 학생들이 특수시설이 아닌 일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며 (ii)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해 각국에서 취한 다양한 시도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형평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보다 폭넓게 논의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라는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1 장에서는 장애학생 프로그램에 관한 광범위한 국제적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통합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사례 연구를 해봄으로써 통합학교를 만드는데 중요한 조건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도록 한다. 통합학교를 위한 조건은 OECD 8 개국에서 확인된 것으로 장애 학생 뿐 아니라 학생 전체를 위한 교육 향상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OECD 국가는 모든 학생들에게 공평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요구사항이 다른 다양한 집단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장애학생에게 투자되는 자원이 얼마가 되던지 간에 일반학생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탓에 자원의 배분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명쾌한 해답이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국제적 분석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이러한 분석 자료는 객관적이고 잘 정의된 일정 기준을 향해 가는 과정을 측정하기 보다는 이들 국가가 형평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척도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요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먼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위해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하겠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 중인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척도는 특수학교의 재학생 수를 파악하는 것이다. 물론 국가마다 많이 다를 것이며 특수학교의 재학생 수가 많다는 것은 일반학교에서 다양한 요구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본 장에서 소개할 조건 중에는 교직원 개발, 학교간 협력과 같은 학교제도 내부의 요인도 있는가 하면 지역사회의 참여와 책임과 같이 학교 외부와의 관계에 관한 것도 있다. 본 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각국의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학생 집단에게 가장 효율적인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OECD 국가에서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는 많이 남아있다.

2 장: 커리어 지침: 새로운 길

OECD 국가의 커리어 지침 담당자는 현재 두 가지 중요한 숙제를 떠안고 있다. 평생학습과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맥락에서 살펴볼 때 그 숙제란 다음 두 가지이다:

- 눈 앞에 놓인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보다는 커리어를 관리하는 방법을 습득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커리어 길잡이에 대한 문호를 확대하여 일생에 걸쳐 커리어 길잡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장에서는 공공정책을 위해 커리어 길잡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논할 것이다. 또한 OECD 국가에서 위의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14 개 OECD 국가의 커리어 지침을 검토하였다.

노동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교육제도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커리어 길잡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형평성 향상에도 도움을 준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경우 사회이동이 더욱 원활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커리어 지침의 임무는 확대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일부가 되고 있다. 심리 전문가들이 졸업 전 학생들을 인터뷰하던 전통적인 모델을 탈피하는 등 이미 이러한 서비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각국에서 최근 시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상자 참조).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서비스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는 학생들이 직업이나 학과를 선택하도록 돕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커리어 관리 기술을 광범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즉 학교가 커리어에 대한 교육을 학과과정에 포함시키고 이를 학생의 전반적인 발달과 연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학교가 이를 학교 교과목으로 통합시켰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커리어 교육은 의무교육 마지막 단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중등교육의 고학년 과정이나 고등교육과정에서 커리어 관련 서비스는 개인적인 개발이나 보다 폭넓은 의사결정 보다는 눈앞에 닥친 문제에 대해 선택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물론 이러한 점도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일생동안 커리어 길잡이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분야의 개발은 아직 충분치 않고, 공공기관의 채용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실직자들이 주로 활용하고 있다. 몇몇 새로운 커리어 관련 서비스에서 성인 교육기관과 연계하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긴 하나 항상 포괄적이고 치우침없는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시장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은 제한된 성공만을 거두었을 뿐이며 공공 분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충분한 재정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커리어 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웹에 기초한 서비스를 통해 공급을 늘릴 수는 있으나 이러한 웹 서비스가 각 개인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아래 상자에서는 각국의 최근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상자 - 커리어 지침: 혁신을 통한 접근성 확대

호주의 국립 커리어 웹사이트(*www.myfuture.edu.au/*)에는 교육 및 연수 과정에 대한 정보, 지역단위의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직업의 구체적인 설명, 교육재원 마련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사용자는 개인적인 관심사와 선호 내용 등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 및 직업적 정보와 관련지어 바라 볼 수도 있다. 웹사이트 서비스를 개시한 후 7 개월 동안 방문회수 2 백 5 십만을 기록하였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매년 3 차례의 대규모 커리어 박람회가 개최된다. 이들 박람회에서는 직업훈련, 고등교육, 성인 교육 등을 다루고 있다. 방문객 수도 수천 명에 이르며 수백명의 전문가, 직업관련 기관, 기업주, 노동조합, 교육기관 등이 참가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에 전략적인 마케팅을 펼친다.

캐나다의 공공 채용 서비스는 커리어 길잡이 서비스를 편부 및 편모, 애보리진(Aborigine)과 같은 특정 집단의 필요에 보다 잘 대응하고 있는 듯한 지역사회의 기관에게 맡겼다. 이러한 지역사회 기관 중에는 정보 서비스, 커리어 카운셀링, 구직 워크숍 등과 같은 커리어 개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있고, 보다 다양한 교육, 연수, 지역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도 있다. 또한 직원 중에 커리어 길잡이 전문가를 두고 있는 기관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스페인에서는 국제적 기업인 알타디스(Altadis)가 회사 직원의 자격과 일자리의 업무 내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개인의 역량과 포부를 향후 기업의 필요에 대비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면접을 받고 있다. 노조와 협상한 정리해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알타디스는 직원들에게 커리어 카운셀링을 제공하고

전직전문기관(outplacement)과 계약을 맺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직전문기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심리학이나 경제학 전공자를 고용한다.

영국에서는 콜센터 기술을 활용하여 성인이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 런디렉트(learndirect)라는 서비스는 전화상담자에게 정보는 물론 보다 폭 넓은 커리어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직원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3 단계로 나뉘어진 업무 자격증 중 하나를 소지하고 있으며 50 만개가 넘는 교육 및 훈련 과정에 관한 온라인 데이터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1998 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4 백만 명 이상이 상담 전화를 활용했다. 상담전화은 1 년 365 일 아침 8 시에서 밤 10 까지 열려있다.

3 장: 고등교육 관리 패턴 변화

거의 예외없이 OECD 국가의 정부에서 고등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검토,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의 노력 뒤에는 고등교육의 목적, 고등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교육기관과 교육대상자의 본질 등과 관련하여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다. 크게 변화한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 수준과 보다 복잡해진 환경에 맞추어 대학과 기타 고등교육기관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이해가 성립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렇다면 이는 고등교육이 운영되고 관리되는 방식에는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일까? 20 세기에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경제성과 사회적 형평성과 같은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에 상당한 영향력과 통제를 행사하였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교육기관이 경제 및 사회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보조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지식의 생성, 교수, 학습의 중앙 집중적 계획이 비효율적이며, 발전하는 사회나 경제를 위해서는 각 교육기관이 일정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에게 전달되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교수의 수요•공급을 조정하는데는 행정기관보다 시장 매커니즘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점에 대해 정부도 수긍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관리에는 몇 가지 까다로운 숙제가 놓여져 있다. 고등교육이 정부가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면 과연 정부가 대학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고 또는 대학이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맞추어 가고자 하는 역동성을 해하지 않고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3 장에서는 각국 정부가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과 함께 고등교육기관의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교육기관이 고등교육제도 전체의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자율을 행사하고, 내부의 장점을 개발해 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는 다음과 같은 고등교육 운영의 5 가지 측면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관리방법 등을 살펴보게 된다:

- 첫째, 교육기관의 내부 운영시 얼마만큼의 자유를 가지는가;
- 둘째, 정부의 재정지원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고 또한 외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가;
- 셋째, 고등교육제도 또한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 및 품질관리(quality control)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변화의 움직임;
- 넷째, 교육기관 관리 강화;

- 다섯째, 지도자를 위한 새로운 역할.

고등교육개혁은 정부가 전략 및 우선과제 등에 좀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한편 일상적인 운영에는 간섭을 줄이도록 하고 있다. 몇몇 국가에서는 교육 및 연구의 질을 모니터하는 기관을 설립하기도 했으며 공공재원 배분을 위한 "매개" 또는 "완충" 기관이 생기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정책 환경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고등교육기관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자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전략적 관리", "규제완화", "책임성"과 같은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어 가는 것이기도 하다.

4 장: 평생학습을 위한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평생학습은 지식사회로의 이전과 그 혜택의 균등 배분에 핵심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성인교육과 평생학습의 기본틀은 그 고리가 약하다. 취약계층의 성인을 포함한 성인 모두의 교육 참여를 제한적으로 묶어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교육방법이 적절하지 않았던 이유도 있으며, 직장, 가족, 교육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지원 서비스가 개인에게 충분히 제공되지 못했던 탓도 있다. 4 장에서는 시간과 재원의 한계라는 매우 중요한 장애요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아직까지도 폭 넓은 성인 교육에 필요한 재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는 이제 기회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라도 이러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투자를 증가시키고 또한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또한 사회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수준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성인교육의 혜택을 재정적인 차원에서만 논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인 문제는 역시 피할 수 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 기업, 정부가 성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자 한다면 이는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예상되는 혜택이 비용 대비 충분하다) 것이어야 할 것이며,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향후에 실현될 혜택을 위해 오늘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이 존재해야 한다) 것이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또는 재정적으로 모두 지속 가능한 것으로 비추어지는 반면 성인 교육에 대한 투자는 종종 그렇지 않다.

본 장에서는 먼저 일생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 수익률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봄으로써 성인교육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에 대해 파악해보았다. 연구 결과 현재와 같은 정책 하에서는 개인, 특히 직장을 가지고 있는 성인이 평생교육을 추가적으로 추구하기에는 교육의 경제적 수익률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평생교육을 하는 동안 소득 감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성인 학습자가 이미 습득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점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기간을 줄이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성인교육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라는 문제는 개인, 정부, 기업주의 비용 공동부담 제도에 달려 있다. 정부는 최취약계층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비용 공동 부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본 장에서는 OECD 10 개국에서 이러한 비용 공동부담을 현실화하고자 최근 시도했던 방안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교육의 기회가 절실하게 필요한 취약계층에게까지 손길이 미치도록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적어도 이들 국가의 최근 시도를 통해 희망을 읽을 수 있었다.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유사한 조치들을 통해 개인과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개략적인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별첨: OECD 국가의 최근 교육정책변화

별첨에서는 OECD 국가의 주요 교육정책 변화를 정리해 보았다. 이는 각국의 자발적인 도움으로 만들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둘만한 주요 정책안 등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정보 검색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OECD 국가의 광범위한 교육정책입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국은 조기 교육, 취학 전 교육 (오스트리아, 한국, 뉴질랜드의 사례)부터 성인 교육, 직장 연수 (덴마크, 핀란드, 스페인 등의 사례)까지 평생교육이라는 기본틀 속에서 어떠한 정책 변화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정책안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쉽게 분류하여 특징을 지우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몇 가지 공통점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무교육기간 동안의 교육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 정책에 관심을 두고 있다. 즉, 학생이 성취해야 할 기술이나 지식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거나 (벨기에, 독일, 일본), 학생의 학습 성취도, 학교의 교육 성과 등을 평가하는 외부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네덜란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 (미국의 읽기 교육 등) 하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었다. 교육의 목표와 책임을 구체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핀란드, 이태리)도 학교에게 좀더 운용상의 자율을 부여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의 일환이다.

둘째, 사회적 소외나 학생소외와 같은 문제는 지속적으로 커다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졸업증이나 자격증을 갖지 못한 젊은이의 숫자를 줄이는 노력(프랑스, 독일), 학생의 학습 동기 유발(영국), 지역별 교육기회의 격차 감소(한국)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셋째,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등교육분야를 개혁의 심장부로 파악하고 접근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성과에 대해 외부적인 책임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교육기관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에서는 볼로냐 선언이 고등교육개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볼로냐 선언은 고등교육의 수준을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많은 국가(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에서 고등교육의 구조적 변화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에서도 많은 변화가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 운영 자율 강화 및 지역 교육당국의 참여 강조 등과 같은 변화로 중앙 교육관련 부서가 교육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줄어들고 전략적 계획과 결과 평가에 좀더 치중하게 되었다.

©OECD 2003

본 개요는, 영어 (Education Policy Analysis - 2003 Edition**)와**
프랑스어(Analyse des politiques d'éducation - Édition 2003**) 표제로**
각각 발간되었던 OECD 출판물의 발췌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 2003, OECD

OECD 출판물과 개요는 www.oecd.org/bookshop/ 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Online Bookshop 홈페이지의 “Title search”박스에서 “Overview”를
입력하거나 해당 영어 표제를 입력하십시오.
(개요는 영어 출판물로 링크되어 있습니다.)

본 개요는 Public Affairs and Communications Directorate 의
OECD Rights and Translation 부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mail : rights@oecd.org / Fax : +33 1 45 24 13 91

© OECD, 2003
OECD 저작권 및 원본 출판물의 표제를 언급할 경우 본 개요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